



아이·부모·교사·행복+
영유아 기관 생활 프로젝트

영유아의 행복한 생활
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이·부모·교사·행복+ 영유아 기관 생활 프로젝트 check list

♥ 영유아 기관 보내기 전 check list

- | | |
|---|--|
| 1 건강 챙기기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우유병 떼기
<input type="checkbox"/> 혼자 잠들기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식재료 경험하기 | 2 마음 챙기기
<input type="checkbox"/> 단체 생활의 특성 이해하기
<input type="checkbox"/> 적응기간을 위한 도움의 여유시간이나 사람 준비하기 |
|---|--|

♥ 영유아 기관에 보내면서 check list

- | | |
|--|--|
| 1 건강 챙기기
<input type="checkbox"/> 휴일에는 가정에서 쉬게 하기
<input type="checkbox"/> 감염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쉬게 하기 | 3 규칙 지키기
<input type="checkbox"/> 편안한 복장으로 보내기
<input type="checkbox"/> 손톱은 짧게, 모나지 않게 깎아주기
<input type="checkbox"/> 결석하면 연락하기
<input type="checkbox"/> 알림장과 가정통신문 확인하기
<input type="checkbox"/> CCTV 열람절차 이해하기
<input type="checkbox"/> 등·하원 시간 지키기
<input type="checkbox"/> 버스 승·하차 시간 지키기 |
| 2 마음 챙기기
<input type="checkbox"/>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input type="checkbox"/> 교사와 상호 소통하기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기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input type="checkbox"/> 아이에게 선생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 보여주기 | |

영유아 보육(교육)은 신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유아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의 마음은 조마조마 합니다. 아이의 첫 번째 단체 생활에 대한 걱정,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에 대한 걱정 등등 아이가 어릴수록 제대로 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모든 영유아 교사는 국가가 정한 교육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들 역시 아이들을 맞이하는 마음은 걱정과 설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는 아이의 영유아 기관 적응에 필수 요소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등 아이의 양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유아 기관과 교직원 모두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직 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고 불안함이 크다면 아이를 영유아 기관에 보내는 것을 미루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불신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기관에서는 입소 초기에 보호자가 교실에 함께 지내는 시간(적응기간)을 두고 있어서 아이의 영유아 기관에서의 하루일과를 알고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은 아이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아~ 이 시간에는 우리 ○○가 선생님과 ○○을 하고 있겠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도 보호자들의 양육태도와 아이들의 기질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심하게 아이를 보육(교육)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영유아 기관에 다니게 되면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영유아 기관에 다니면서 보호자에 대한 애착을 교사에게로 확대하게 됩니다. 교실, 또래 친구들, 교사 모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가 기질 불안감을 이해하고 영유아 기관 초기 생활을 도와야 합니다. 이 적응프로그램에는 그동안 아이를 주로 양육했던 사람이 가장 적합하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람, 시간에 대한 준비를 입소 전에 하셔야 합니다.



적응기간 동안 보호자는 -

- 1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므로 적응 기간 또한 다르게 진행 됩니다.
- 2 처음에는 놀이시간의 짧은 방문(40~50분)으로 시작하여 오전 실내놀이, 간식, 바깥놀이, 점심, 낮잠 등으로 기관에서 보내는 점차 시간을 늘려줍니다. 보호자도 처음에는 교실에 함께 있다가 점차 헤어지는 시간을 늦춰 갑니다.
- 3 교사가 급히 아이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교사도 아이에게는 낯선 인적 환경에 불과하므로 아이와 친밀해지기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 4 영유아 기관에서 잘 논다고 처음부터 적응시간을 마구 늘리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장난감에 호기심으로 가정에 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으나 이곳이 보호자와 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적응이 퇴보하여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5 헤어질 때 몰래 사라지거나 운다고 해서 거짓말로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올 거야.”라고 분명히 알려주면 헤어질 때는 울더라도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가거나 거짓말을 하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몰라 하루 종일 불안해 합니다.

영유아 기관 적응을 위한 첫 한 달을 잘 투자한다면 졸업 때까지 아이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영유아 기관 생활이 보장되며 이 경험은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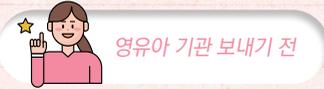
3 “어려 식재료들을 경험해 보아요.”

이유식을 끝내고 유아식을 한다 하더라도 영유아 기관에서의 식사는 가정보다 그 재료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기관 입소 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앓기 쉬운 병이 장염 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기관에 보내기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표를 보시고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식재료가 있다면 미리 맛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알레르기를 보이는 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영유아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4 “업어서 재우는 습관은 고쳐야 해요.”

낮잠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영유아 기관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0세 영아의 경우 1:3, 1세 영아의 경우 1:5가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업어서 재운 아이는 교사가 그러한 수면 습관을 존중하고 싶어도 역부족 입니다. 교사가 지켜줄 수 없는 수면습관은 가정에서 부터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소 초기 보호자와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스스로의 잠자는 습관도 달라져 적응을 더 어렵게 합니다. 또한 우유병을 빨면서 잠드는 것도 우유의 유당이 충치를 유발하므로 꼭 고쳐져야 하는 안좋은 습관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습관이므로 영유아 기관을 보내기 전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만 영아는 6개월만 되어도 컵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1 “재원아들도 적응기간이 필요해요.”

재원아들도 해가 바뀌면 선생님과 또래 친구와 교실이 바뀝니다. 따라서 같은 영유아 기관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재원아들도 신입 원아만큼 적응이 필요하므로 학기 초에는 처음 영유아 기관에 보내듯이 보육(교육)시간을 좀 짧게 한다거나 보호자가 더 관심을 갖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은 다 했나요?”

영유아 기관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면역력은 모유 등에 의해 유지되다가 점차 감소합니다. 반면 영유아 기관에 다니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기관 입소 전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점검합니다. 면역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한 달이 소요되므로 3월에 아이를 영유아 기관에 보낸다면 1~2월 중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필수는 아니지만 단체 급식을 하게 된다면 적극 권장합니다.



5 “가정에 있을 때보다 병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어요.”

>>

가정에서는 보호자와 1:1로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유아 기관에서는 또래와 같이 생활 합니다. 따라서 옆에 아픈 친구가 있으면 병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수족구나 수두는 영유아 기관에서 매우 흔한 감염병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아이를 영유아 기관에 보내야 하며, 만약 영유아 기관에 다니다가 이러한 감염병에 걸리면 절대 영유아 기관에 보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6 “다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신체 조절력이 미흡하여 혼자 넘어지거나 다치기 쉽습니다. 친구에 대한 관심을 깨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놀던 장난감을 뺏기거나 하면 손톱으로 할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단체 보육(교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친구와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보호자간의 배려와 이해도 아이들이 배울 덕목입니다.

보호자들은 아이의 손톱을 짧게, 모가 나지 않게 깎아주는 것도 꼭 기억해야겠죠?



영유아 기관에 보내면서 ①

1 “CCTV는 이럴 때만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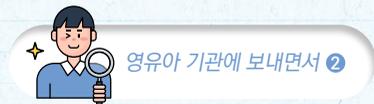
영유아 기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영유아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원한다 하여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일 때만 열람이 가능하며 법에 따라 열람시기,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여 영유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CCTV에는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2 “결석을 할 때는 먼저 영유아 기관으로 연락해주세요.”

교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들을 돌보고 보육(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기관에 오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교사는 아이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아이의 결석 여부를 영유아 기관으로 연락한다면 교사는 보육(교육)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교사와의 직접 통화를 원하거나 등원 시에 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을 빼앗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영유아 기관으로 연락을 주셔야겠죠?





1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영유아 기관에 등·하원시에는 신발을 벗고 교실로 들어와 가방을 정리하고 걸옷을 벗는 등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상생활 교육의 일부로 바쁘시더라도 아이가 연령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신고 벗을 수 있는 짝짝이가 달린 신발, 입고 벗기 쉬운 고무줄 바지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환경은 보호자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추가 많은 옷, 멜빵 바지, 끈 있는 운동화 등은 아이를 힘들게 만듭니다.



2 “아이들의 ‘성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엄마·아빠놀이나 병원놀이를 하면서 혹은 화장실 사용 중에 친구의 성기를 보고 싶어하고 자신의 몸도 친구에게 보여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을 성인의 성적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성적 행동의 동기와 의미가 성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호기심에서 시작하고 놀이로 생각합니다. 영유아기 성교육은 필요하고 교육의 시작은 소중한 내 몸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사용 등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점검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3 “등·하원시간을 지켜주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아이가 영유아 기관 생활을 하는데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서 등·하원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전 실내 놀이 시간은 아이에게는 중요한 학습 시간으로 이 시간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영유아 기관에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놀이가 한창인데 중간에 늦게 온 아이가 놀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정에서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온다면 정해져 있는 식사, 낮잠 시간도 즐겁게 참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4 “버스 승·하차 시간을 지켜주세요.”

등·하원 차량 운행은 영유아 기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입니다. 한 명만 늦어져도 전체 운행 시간이 어긋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시각, 장소, 인계자를 잘 지켜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1 “식사지도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하는데 있어요.”

식사지도에 대한 보호자들의 의견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보호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면 잘 먹으니깐 다 먹여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사는 일관성 없이 아이마다 다르게 지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기관 교사들은 먹기 싫어하거나 처음 맛보는 음식에 대해 한 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 식습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낮잠도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세계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생체 리듬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점점 하락하여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등 영유아 기관의 오후 일과를 재미나게 할 수 없습니다. 4세까지는 꼭 낮잠을 자도록 전문가도 권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면 조용한 휴식 시간이라도 갖는 것이 아이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잠을 재우지 말아주세요”라는 요구는 아이 건강을 위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장보육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연장보육이란 미리 연장보육 이용을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보육(교육)을 의미합니다.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 반을 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별도의 전담교사와 함께 생활합니다. 장시간 보육(교육)으로 소진된 영유아가 충분히 휴식하며 놀이 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일과로 운영됩니다. 입소초기에는 아이가 힘들어 하므로 이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이 시간에 다음 날을 위한 보육(교육)준비를 하게 됩니다.



4 “휴일에는 쉬어야 해요.”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듯 일주일의 긴장 속에서 영유아 기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은 주말에 아이와 놀아준다는 것이 놀이공원 등 외부 놀이 경험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와 놀아준다는 것은 편안한 가정에서 아이와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영유아 기관 생활을 위하여 가급적 주말에는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영유아 기관에 보내면서 4

1 “교사와 늘 소통하세요.”

아이가 블록을 높이 쌓은 것을 보고 교사는 아이에게 “산(山)만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가정에 가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산만(散漫)하다가 뭐야? 선생님이 나보고 산만하다고 했어.” 실제로 있었던 웃지 못한 해프닝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에게 물어보세요. 말을 배우는 서너 살이 되면 자신의 상상까지 섞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말 또는 남의 관심을 끄는 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거짓말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기관에서 있지 않았던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으므로 담임선생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2 “알림장은 서로가 소통하는 장이에요.”

영유아 기관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림장, 일일수첩 등입니다. 교사는 아이의 식사, 배변, 놀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보호자도 역시 아이의 상태를 잘 기록해서 전달해주어 자녀를 함께 키우는 상호협력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투약 의뢰 외에도 보호자가 쓰는 모든 이야기들이 교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컨디션을 알 수도 있고, 아이가 경험한 것들도 알게 됩니다. 교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3 “아이들 앞에서는 무조건 선생님을 칭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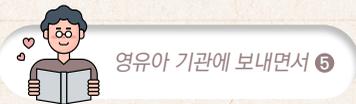
교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듣는데서 교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말을 삼가 주세요. 교사에 대한 보호자의 말과 행동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영유아 기관에서 종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선생님을 신뢰하는데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신뢰를 쌓지 못한 교사로 부터는 배움도 일어나기 힘드므로 결국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4 “교사에게도 교육과 휴가가 있어요.”

영유아 교사는 직무를 위해 안전교육이나 아동학대예방교육과 같은 의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승급이나 자격을 위한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충전을 통해 교사도 성장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보육(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자녀의 장애를 인정해 주세요.”

영·유아기 자녀가 장애로 의심되더라도 부모는 특히, 어린 영·유아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기 힘듭니다. 발달이 늦되는 아이가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믿고 싶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녀에게 장애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못할 짓인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자녀의 장애가 자신의 탓이 아닐까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영원히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장애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더 슬픈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영·유아의 보호자인 부모는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족으로 찾아온 소중한 생명인 영유아기 자녀를 보듬고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되도록 빨리 벗어나서 감정의 부정적인 부분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아이와 평생을 함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장애에 대한 어려움이 오히려 경감되고 긍정적 발전을 할 수 있으며 가족 안에서 자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 부모의 영유아 자녀 장애 수용의 단계 및 특성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 자신의 감정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자녀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녀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장애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부모의 역할을 기능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영유아 기관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

장애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아 보육’ 실시라는 원칙에 따라 무상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중심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보육(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한 경우 치료지원이 제공되며, 편의 시설도 완비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장애 영·유아 전문가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도·중복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거나 별도의 보조인력을 배치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비장애 영·유아의 수가 장애 영·유아의 수보다 훨씬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장애 영·유아가 비장애 영·유아와 함께 통합되어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비장애 영·유아와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발달지체 영·유아의 경우 또래와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발달과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유형	내용
영유아 기관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2세의 영아~초등학생 대상 보육(교육) 실시 0~12세의 영아~미취학 장애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실시 장애아 전문 영유아기관: 1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비장애 영유아도 일정 비율 이내에 함께 보육(교육) 및 치료 지원 실시 장애아 통합 영유아기관: 장애영유아 교사를 배치,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 통합 보육(교육) 실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영아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영아를 대상으로 함 센터 방문 교육, 통신 교육, 체험 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 형태의 수업 진행
유아특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특수학교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 방법, 치료지원 실시
특수학교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세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특수학교에 편성된 유치원 과정의 학급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제도,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유치원 (통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이상의 유아 교육 유치원 일반학급에 통합하거나 특수학급에서 교육 각 시·도 교육청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

3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 심사를 거쳐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로 문의하면 됩니다.



4 “영유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보 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원하는 영유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주소 또는 지도를 활용 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영유아 기관을 클릭하면 특수반(장애아반) 설치 유무, 특수교사 배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영유아 기관 간의 비교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5 “장애 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장애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건강, 교육, 관련 서비스 등 보호자를 위한 양육 및 교육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애 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 맘”을 활용해 보세요. 온 맘 사이트 <https://www.nise.go.kr/onmam> 온 맘 TV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장애 자녀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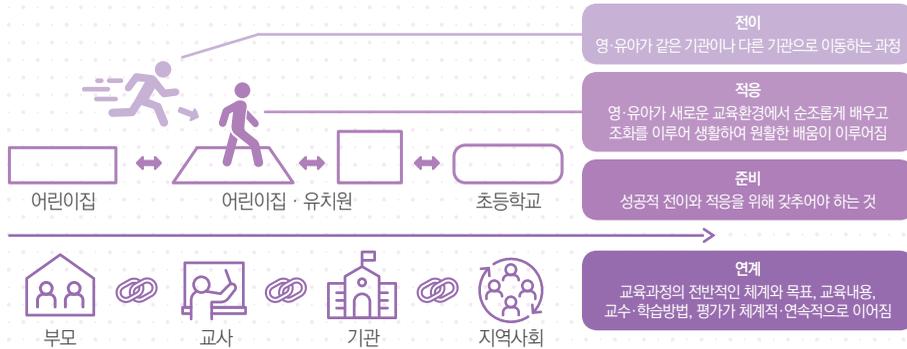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 장애자녀 생애주기별 부모지원가이드 / 부모자조모임 / 긍정적 행동지원 / 손담 / 요리활동 / 체육활동 온맘 교실을 통해 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양육 가이드북 / 건강영양 정보 / 양육스토리 / 교육 복지제도 / 지역별 기관정보

영유아를 위한 함께 있는 성장 “이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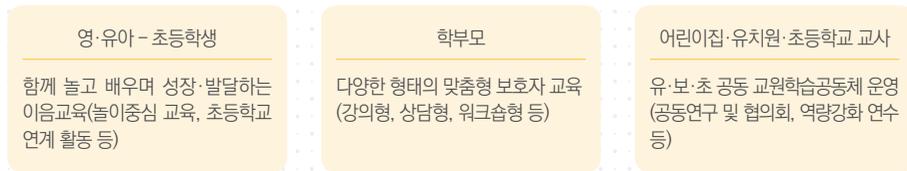
• 이음교육이란?

전이, 적응, 준비, 연계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모든 교육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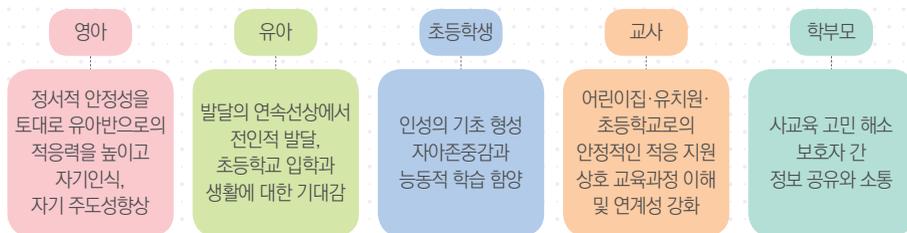


※ 출처 : 교육부 충청남도 교육청(2023)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사용 안내서-이음교육 이론편(재구성)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5) 영·유아 이음교육(재구성)

• 이음교육 무엇을 할까요?



• 이음교육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재구성)

《이》 보육활동 보호

• 보육활동 침해

- 보육활동 침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라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상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

-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임

•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

-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의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보호자에 포함됨

보육활동 침해 및 예방

침해 유형은 형법(무고,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손괴),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 행위), 무단촬영 및 녹음 배포행위, 성희롱, 반복적 민원제기, 부당업무 강요 및 부당한 간섭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등이 있음

무 고 **정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예시**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법적 근거** 형법 제156조 (무고)

명예훼손 및 모욕 **정의**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예시** 영유아의 보호자가 다른 부모들에게 교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업무방해 **정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쳐들어와 위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보육활동 보호
문화조성 캠페인(영상)
보육교직원 존중 캠페인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영상)
보호자 대상 교육

* 자세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당 홈페이지(www.dampool.com)
→ '홍보물'에서 확인가능

※ 출처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2025)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 라인



영유아교사 교권 보호를 위한 지침

구분	내용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놀이 중심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믿고 지원합니다. 보호자에게 놀이중심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자로 인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영유아 교사가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이 되어 줍니다. 영유아 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교육(보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유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영유아 기관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와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영유아에게 최선의 교육(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로부터 정당한 교육(보육) 활동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하거나 요구를 받을 경우, 정중하게 수용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영유아에게 최선의 교육(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교사는 자격을 갖춘 교육(보육)전문가임을 알고 존중합니다.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보호자임을 알고, 영유아 발달을 위해 영유아 교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상호 협력합니다. 영유아 교사의 자율적 영유아·놀이 중심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믿고 지원합니다.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영유아 교사의 업무시간 이외(퇴근 시간 이후 혹은 주말)에는 전화, 문자 보내기 등으로 영유아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교육(보육)활동 시간에는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자제합니다. 보육 활동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을 한 후, 정해진 일정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거나 영유아 교사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